

# 한미, 감시·탐지자산-지상·공중 타격전력 통합 운용

연합 대화력전연습 실시  
적 장거리 화력체계 조기 제거 중점  
지휘통신체계 상호 운용성 검증도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감시·탐지자산, 지상·공중 타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10포병여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미 연합 대화력전연습(CCX)'을 실시했다.

한미 장병 250여 명이 참가한 CCX는 연합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해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장거리 화력을 최단 시간에 격멸하기 위한 지휘소 연습이다. CCX는 1994년 미2사단 주관 '대화력전훈련'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한국군이 주도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미 양국 군의 훈련 모의모델을 상호 연동해 대항군과 아



김재환(맨 왼쪽)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과장이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 중 수행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군의 지상·공중 화력전력, 한반도 전 지역을 정찰·감시하는 자산까지 묘사한 'CCX 모의모델'을 적용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적 도발 양상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 발생 가능한 대화력전 상황을 상정했다.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적의 장거리 화력체계를 조기에 제거하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

지구사는 CCX 준비 과정에서 계획회의, 여행연습, 증원요원 소집교육 등 준비에 최

선을 다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재환(대령) 대화력전과장은 "한미 장병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토의하고 숙달함으로써 연합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한미가 발전시켜온 대화력전 수행 방안과 지휘통신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할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톨란(대령) 미210포병여단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의 장거리 화력 위협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열린 연습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연습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굳건한 동맹을 증명하는 장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L-SAM 양산 돌입

방사청 방추위, 계획 심의·의결  
올해 계약·생산 2027년부터 배치

위사업청(방사청)은 16일 서면으로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L-SAM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체계 개발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한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지

대공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1조7302억 원이 투입된다.

L-SAM 확보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 능력과 방어 범위가 향상돼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방어를 구현하게 된다. 요격 고도가 40~70km인 L-SAM이 배치되면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II(15~20km), 패트리엇(15~40km) 등으로 구축된 KAMD가 더 촘촘해져 북 핵·미

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L-SAM은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 요격(Hit to Kill)' 방식이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 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관련 계약을 맺고 생산에 들어가 2027년 배치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 방사청장, 19일부터 사우디·노르웨이 방산외교

지상전력 현대화·정찰위성 개발 논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석종건 청장이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9~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석 청장의 중동·유럽 방문은 2027년 '방

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올해 첫걸음이다. 중동 최대 방산협력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왕실과 수도·핵심 시설 방어 임무를 맡은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사우드 장관을 면담한다.

석 청장은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지상 전력 현대화 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 방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은 국가방위군 전력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 국방부의 칼리드 빈후세인 알비야리 정부차관을 만나 사우디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상·항공 분야 전략자산 획득 사업의 참여 방안을 협의한다. 한국군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석 청장은 또 방산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노르웨이 우주 분야 선두기업인 KSAT를 방문한다. 우리 군 정찰위성 개발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위성 네트워크 업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또 노르웨이와 수출을 논의 중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사업을 위한 협력에 우주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아미 기자

## 6·25전쟁 참전용사 찾아 감사장·위문금품 전달

육군11기동사단 불사조대대

육군11기동사단 불사조대대원들이 16일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 이규하 용의 집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이용의 집을 찾은 대대원들은 감사장·위문금품을 전달하고 담소를 나눴다. 미리 준비한 방풍비닐과 보온재를 집안 곳곳에 설치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대대원들이 이용 자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박진봉 중사가 육군 병영인권 콘텐츠 공모전 수상 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대대원들과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박 중사는 상금으로 구매

한 위문품을 전달하던 중 이용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박 중사는 지난해 하반기 사단 인권교과경연대회 등에서 받은 상금으로 대대원들과 뜻을 모아 재차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용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박 중사가 받은 상금에 대대원들이 모금한 돈을 더해 내복·쌀·방한복 등을 구매·전달했다.

박 중사는 "추운 겨울이 가기 전 다시 찾아뵙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전용사이자 선배 전우에게 존경·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육군11기동사단 불사조대대원들이 6·25전쟁 참전용사 이규하 용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조유미 중위